-3과 2분의 1차 세계대전

이피

전쟁의 현장에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. 직접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과 이리저리 쫓기다 죽고 다치며, 사랑하는 이를 잃는 사람들. 나는 그 전쟁 당사자가 아닌, 그러나 전쟁에 휩쓸린 사람들 개개인의 전쟁을 마이너스 전쟁이라고 부르고 싶다.

수십, 수백만의 사람들이 살해당해도 희생자들이 먼저 배신하고, 도발했기 때문이라고 핑계를 만들 수 있다. 학교와 병원을 폭격하면서 너희가 먼저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. 성폭행을 당한 여자에게 네가 먼저 추파를 던졌다고 손가락질할 수 있다. 죽은 사람, 가족과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 온갖 이유를 만들어 비난할 수 있다.

부끄러움을 가리고 덮는 행위를 하는 것은 인간만일 것이다. 인간의 역사는 폭력을 폭력으로 가리고 덮어서 이어져 왔다고 해도 될 것이다. 남을 해하는 일이 악한 일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드물다. 그러나 이 자명하고, 상식적이고, 윤리적인 약속, 이것에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핑계가 만들어지고, 가치가 전도된다. 그리고 때리고 죽인다.

폭력을 폭력으로 덮어버릴 수 있는 모호하게 위장된 언어. 나는 그 언어들을 전시장에 현수막으로 건다. 현수막의 글자들은 작가가 창제한 글자들로 쓰여 있어 누구나 금방 읽을 수 없고, 읽는다 하더라도 폭력을 폭력으로 덮은 언어라 금방 이해할 수 없을 거다. 사방의 현수막들은 분홍빛으로 떨고 있는 육체(조각 작품)들을 가리고 덮는다. 회화에는 죽거나 다친, 마치 식탁의 음식물처럼 진설된 희생의 제물들이 있다. 이 모든 희생들을 가리고 덮어버리면서 폭력은 결코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고 발언하는 마이너스 전쟁이 있을 수 있다. 누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, 누가 선인지 악인지, 누가 폭력인지 구별조차 불가능한, 그 안의 희생자들의 마이너스 전쟁. 언젠가 우리에게도 닥쳐올 것만 같은, 우리는 원하지 않는데 치러야만 하는 제3차 세계대전. 절멸의 시스템과 프로그램들. 마이너스 3과 2분의 1 세계대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. 나는 이 마이너스 전쟁의 모습을 조각, 회화, 설치로 구현했다.